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임관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민 편집: 양재웅

나 주 앞에 나를 오직 부인하리라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 따르리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시작한 2009년의 1월은 행복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불러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컸음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롬 1:1). 예배와 집회 때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었으며 헌찬 찬송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2월에도 계속된 말씀과 찬양의 은총은 제1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시 16:1)를 통해서 참된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길 힘과 환난 중에 피할 그 무엇이 세상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합니다.

지금 주변은 걱정과 근심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면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을 2:12~14)로 시작한 사순절 메시지는 총 21회에 걸쳐 선포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진행될 성경요일(4월 10일)을 위한 준비가 금요찬양집회 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는 물론이고 공예배와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행하는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는 온전한 사순절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은혜로다.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가리라."

*정로·안수집사 후보자 피택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3월 29일(주일) 4부예배 후 본당에서 실시합니다.(세례교인은 헌찬절치 바름)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전하였다(롬 1:16~17).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메시아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신 복음 밖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지적하였다(을 2:2~3).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사상이나 이념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갈 6:7).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역시 실존적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따라 자연인으로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롬 1:18).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적인 것으로 진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어 구원을 이루어주심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구원의 능력처럼 실존적으로 역사하신다(롬 1:21~23). 하나님의 진노하심 역시 불의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한성을 지니고 사는 인간은 시공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이 이미 현재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미 저주 받았으니 끝이 난 것인가' 하고 자신에게 질문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고 있으며 또한 이 구원이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산다(제 22:3~5).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인간을 향하여 이미 계시되었다. 구원의 은총을 모른 채 불인과 공포 속에 현실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그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극히 현실적이며 동시에 그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함께 가고

있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제 20:13~15, 21:8). 하나님의 의와 진노는 모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자신의 자선이다. 하나님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다. 창조 이래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의 만드신 만물 안에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히 4:12~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롬 1:20).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은 나타났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계시하여 주셨다(롬 3:19~20).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진리를 알게 되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선하려고 하여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전 2: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의도 모양으로 계시하여 주셨다(롬 3:21~22).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롬 3:25~26).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처럼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롬 1:24, 26, 28).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불경건은 인간의 비도덕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기적이고 허망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 죄는 어떤 기준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행동이 아니다. 죄는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다. 죄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직 죄를 반대하거나 또는 따르는 선택이 있을 뿐이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들은 모두가 저주 아래 있을 뿐이다(롬 6:23). 모든 사람들은 죄와 율법,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새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신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아멘.

LORD, WILL YOU KEEP SILENT AND AFFLICT US BEYOND MEASURE?

⁽¹⁰⁾Your holy cities have become a wilderness, Zion has become a wilderness, Jerusalem a desolation.

*⁽¹¹⁾Our holy and beautiful house, Where our fathers praised You, Has been burned by fire;
And all our precious things have become a ruin. ⁽¹²⁾Will You restrain Yourself at these things,
O LORD? Will You keep silent and afflict us beyond measure?*

(Isaiah 64:10~12)

In today's Bible verses, Isaiah cries out to the Lord God to intervene, "Your holy cities have become a wilderness, Zion has become a wilderness, Jerusalem a desolation. Our holy and beautiful house, where our fathers praised You, has been burned by fire; And all our precious things have become a ruin. Will You restrain Yourself at these things, O Lord? Will You keep silent and afflict us beyond measure"(Is. 64:10~12). The Israelites are experiencing tremendous suffering and really looking for God to step in and make things better. Isaiah doesn't understand why God is keeping quiet at such a crucial time. Indeed, there are times when we can identify with Isaiah's cry, like whenever the innocent die at the hand of oppressors, or the wicked carry out carnage and are not judged. When tragedy strikes our family or nation, we wonder what God is doing and why the unthinkable is happening. During such times, we need to remember certain things.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extending His grace to all mankind. Isaiah is calling out for God to do something drastic, "Oh, that You would rend the heavens and come down, that the mountains might quake at Your presence"(Is. 64:1). He wants God to show Himself so that the world will tremble at His presence. We may have questions about why God doesn't prevent pain, or why evil people get away with sin, or even why God doesn't stop bad things from happening. Actually, if we are honest with ourselves then we know that we are all sinners before God and that we have to stand by His judgment. He is giving everyone the opportunity to accept His grace,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whom God displayed publicly as propitiation in His blood through faith. This wa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the forbearance of God He passed over the sins previously committed"(Rom. 3:24~25). Peter tells us the same thing, "But do not let this one fact escape your notice, beloved, that with the Lord one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like one day. The Lord is not slow about His promise, as some count slowness, but is patient toward you, not wishing for any to perish but for all to come to repentance"(2Pet. 3:8~9). What seems like a long delay of Christ's return is because God does not view time as we do and because He wants more people to repent and receive His grace. We all deserve God's judgment, but now He is waiting in grace. This moment in time is an opportunity of grace for each of us.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fulfilling His plan,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so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Gal. 4:4~5). Humanity failed in the Garden of Eden, but God gave us His promise of salvation(Gen. 3:15). Do you think the Fall in Eden took God by surprise? From the Fall there was a long wait for the Savior. God kept His promise alive through the prophets, telling them about the Savior, and that He would be born through a virgin in Bethlehem. Then came 400 years of prophetic silence, where God did not speak. Finally, a flurry of angelic activity arrived announcing Jesus Christ being born in the fullness of time. God is always on time. He was on time at the cross. He was exactly on time for Christ's resurrection. He will be on time with the return of Christ. Are you ready for that great day? Remember when Jesus' disciples asked Him,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Acts 1:6). Jesus told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Acts 1:7). All we need to know is that God's salvation plan is full proof!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knocking with His pierced hand,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dine with him, and he with Me"(Rev. 3:20). Jesus Christ, the Son of God, humbly came down from heaven to be born as an infant in a stable and to suffer the cross in obedience to His Father's will. He died to save you and me from the consequences of our sins, which is eternal hell. Those who think God does not respond to human conditions do not hear His voice because of their pride. Jesus took the lowest and humblest of positions, inviting us to fellowship with God forever. Jesus is God, the Creator God, and He came to you and knocked on the door of your soul. Do you understand how much love that requires? He is with you now and forever, but when things don't go like you want, you start questioning how come He doesn't do anything for you. God's hands move nations and circumstances to bring His people to salvation.

My dear friend, have you really heard the voice of Jesus? Have you recognized His work in your life? Jesus said, "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abode with him"(Jn. 14:23). God meets you where you are, responds to your call, gives you eternal life, and will finally make everything right. Do you have sincere faith in Jesus Christ? Do you really trust in the promises of God? If so, then don't ask God why He appears silent during your difficult times. Take comfort in remembering what He is doing. He will give you peace and victory. Amen. 

다음 주일 설교

주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¹⁰⁰⁾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¹⁰¹⁾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¹⁰²⁾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64:10~12)



김성관 목사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사 64:10~12).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의 외침에 공감이 가는 때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압제자의 손에 죽을 때, 악한 자가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나라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남들보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반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은총의 기간을 연장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강력한 일을 행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사 64:1).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온 세상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막지 않으시는지, 왜 악인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에게 정죄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언젠가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복과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4~25).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베후 3:8~9).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랫동안 지체된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총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

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인류는 에덴동산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창 3:15). 에덴동산의 타락이 하나님을 잡박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락 이후로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세주가 저너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알리는 천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의 대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주 정확한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정확한 시간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가”(행 1:6).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 1:7).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못 박힌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지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하늘에서 내려와 한 아기로 구유에 누웠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한 상황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느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요 14:23).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영생을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3. 11.)

누가 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심작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참 성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곧 있을 이 놀라운 일에 우리는 무관심하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치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할 말, 축복에만 관심을 쏟는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하며 분명한 주의 강령을 전했다(살전 4:13~14).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다(살전 4:15).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며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할 것을 권하였다(살전 4:16~18).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강령을 붙안으며 인내하는 것이다(약 5:8). 매순간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근신하며 깨어 십자가를 통하여 한대(벧전 5:8 ; 요일 3:2~3). 예수님은 반드시 성취하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행 1:11). 참 성도를 데리고 자신이 친히 만든 거처로 참 성도를 인도하실 것이다(요 14:3). 교만과 거짓말, 자존심과 의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자.

누가 준비되었는가? 준비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 열 처녀 비유에서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다. 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을 완벽한 외적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마 25:1~7). 그러나 정작 기름을 준비한 한 신부는 다섯 명뿐이었으며 나머지 처녀는 뒤늦게 준비하자고 한 문은 닫혔다(마 25:10).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향해서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마 25:12)고 말하였다. “그러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각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마 24:44).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일하겠지만(살전 5:2) 깨어 준비한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살전 5:4). 잠들어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실 때 놀라서 허둥대겠지만 깨어 준비한 성도들은 “그러면 그렇지!”를 외칠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자(요 21:36).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갈 것이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믿음은 심전되어야 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히 9:28).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소망이다. “복스라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1:3~4).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환난과 압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딤후 4:7~8).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기 때문이다(골 3:4).

거룩한 자들이 갈 것이다 거룩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계 20:6). 참된 거룩은 인간의 의, 노력이나 공로로 통해서 얻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벧전 1:16). 이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다(엡 1:4).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그들이 생명의나무에 가까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계 22:14). 진심으로 회개하고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자(요일 2:3).

누가 남게 될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순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눅 9:62).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남게 된다(요일 2:15~17 ; 약 4:4).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고후 6:17).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더욱 위험하다.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와 섞어서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축복만을 강조할 때 결국 그들과 그 거짓 말씀을 듣는 자들은 천국과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계 3:15~16).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100여 년 동안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방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마 24:12,39).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릴 때에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이 늦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키자(고후 6:2).

주님의 말씀을 경순히 믿음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은 확실하다(히 1:7).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자. 매순간 솟아오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흰 옷이 붙들리지 않도록 하자. ‘누가 가는가?’는 ‘누가 그 길을 붙잡는가(keep)’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 부와 명예를 붙잡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자,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누가 가는가?’의 문제는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은 아주 쉽다. 반면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은 불가능하다.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히 12:2).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을 밝히라 그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게. 그 은혜 찬송하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62

· 마주 철도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 (11:27~33)

마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기도와 믿음의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다(마 11:27).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였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니마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마 11:28). 여기서 종교인들이 언급한 ‘이런 일’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었다(마 11:15~17).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제사에 쓰일 제물을 성전에 가져오고 환전하는 일은 당시 출어난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었다. 특히 성전 제사를 책임지던 당시 종교인들과 성경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한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와 같은 전복에 개되지 않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분명 당시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고 동시에 당시 제사장들에게 인색한 이득을 취하던 종교인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였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매년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마 11:18, 14:1).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세 번이나 밝히셨다(마 8:31, 9:31, 10:33~34). 이런 상황에서 살아난 성전 청소는 종교인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였다. 한편 종교인들의 모습은 무언가 진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 잘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보배를 받았는가?”를 묻지 않았다. “누가 권위를 주어서 성전을 청소했는가?”를 질문했다. 이들의 질문은 세상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매우 타당한 질문처럼 보인다. 이처럼 십자가가 없는 질문은 아주 지혜롭다. 십자가가 사라질 때 세상의 권위와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초점이 벗어날 때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울무에 걸린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죄를 정곡으로 꿰었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것들

을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몰아가려고 도전하였다. 이에 예수님은 반문하셨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했으니 대답하라 고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니 이리라”(마 11:29).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던진 질문은 세례 요한이 베냐민 세겔가 할로로부터인지 아닌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대한 것이었다(마 11:30). 이에 종교인들은 탈레미에 빠졌다. 만일 할로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며 또한 사람의 권위를 받은 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소독을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마 11:31~32).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니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마 11:33).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종교복음을 무시하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같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중심으로 놓기보다는 교회 자원을 늘어놓으며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적자를 만드는 데 정신을 팔고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법이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인을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오늘 교회들 중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4~15).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가 하나님께 기초함을 알고 있다(마 1:22,27). 복음은 믿지 않는 데 있다.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믿음 없는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둠의 울무에 걸려 있지 않은가? 악한 사탄은 매순간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는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최고의 타협인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 절대로 십자가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행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임을 인정하며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자. “오 사람의 예수님,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마을에 도착하여 사역을 할 때나 차로 이동 중이거나 숙소에서 쉬는 중에 기도로 다짐을 되뇌이다 보니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 여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주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후회하는 선교를 했을지도 몰랐기요... 한국을 떠나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들었지만 제 잘못된 생각을 추스리며 다짐을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둘째 날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 반 만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 속스러웠지만 팀원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힘이 붙은 것 같습니다. 사역 첫날, 잠시 주춤했지만 용기를 얻어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간곡히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라고 전했다. 예전에는 귀찮은 마음과 부끄러움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교 그런 마음 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사역 셋째 날 우리 팀이 성경의 능력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강가 마을에서 사역할 때에 눈앞에 커다란 불고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순간 '아! 이곳에 잘못 들어왔구나!' 하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팀장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담대히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하며 담대하게 사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소승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어 시련을 못 이겨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김현숙(약성, 고동부 2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소개합니다. 인연에 있는 한 회사의 직원식당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통성명을 한 후 여러 차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교화에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를 거부하고 피하곤 했습니다. 이슬비에 옷이 적셔지듯 기도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다 싶어 교회로 초대를 하면 여지없이 거절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글병글하며 다가와 결혼 날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매가 아니면 장가 못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후 20여일이 지나갔을까? 아침에 만나자마자 그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 때문에 장가도 못 가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점을 보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하여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기쁨이 넘쳤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의 결혼이 파혼되었다는데 왜 기쁨이 솟구쳤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저는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얼마 후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매를 만나 지금도 모 교회에서 집사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5년 동인의 긴 전도 여행 끝에 열매 맺게 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창하십니다. 전도하다가 실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충현의 온 성도들이 1인 1명씩 전도하여 영적으로 부흥하는 2009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해(장로, 13교구장)

'가는 선교사 · 보내는 선교사'

내게 주신 특권

스웨덴의 선교사이며 탐험가였던 리빙스턴(David Livingston, 1813~1873)은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인들의 태도와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는 1841년 흑인의 대륙,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는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에게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생사를 몰라 걱정했고, 급기야 1871년 탐험가인 헨리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 탐험대를 조직하여 아프리카로 들어갔다. 1년 동안의 강행군에, 밀림 속에서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날 수 있었다. 리빙스턴은 식료품과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스탠리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를 극진히 간호했다. 드디어 리빙스턴은 건강을 회복했다.

스탠리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권면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사역을 위해 30년간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만 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시지요?"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게 아프리카의 선교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답니다."

스탠리는 혼자 그곳을 떠나왔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나 1873년 5월,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 무릎 꿇고 두 손을 꼭잡고 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주님이 주신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는 진실로, 연달연초의 정리하여 할 바듯한 일무가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개인적 사서로움과는 상관없이 나는 어느새 선교지에 와있었다. 두 아이의 아빠와 음영성 엔지니어로서가 아닌 선교사란 이름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그분의 승리

유난히도 준비기간이 길게 느껴졌던 선교였다. 벌써 몇 년째 맞는 선교지만 항상 새로운 느낌과 그에 뒤따르는 긴장감이 쉬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더욱 견고해진 선교현과정이 그려졌고, 연달연초의 정리하여 할 바듯한 일무가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개인적 사서로움과는 상관없이 나는 어느새 선교지에 와있었다. 두 아이의 아빠와 음영성 엔지니어로서가 아닌 선교사란 이름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하루 이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났다. 그 때마다 어찌할 수 없이 분주하던 마음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정으로 채워졌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핑계대던 입술은 복음의 담대함으로 함께 하겠다. 헌두사원과 맞닿은 집이라 피하려 했으나 오히려 거친 손은 꼭 잡으며 눈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여인과 눈,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만 간절히 묻는 노인, 이 어쩔만 말 몇 마디가 그 어디에 저들을 울고 웃게 할 힘이 있단 말인가! 매번 어리석고 두려워하던 속 신병 같기만한 나를 들어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셨다.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기에 더욱 아름다운 그 분만의 승리였다.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며 눈물로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분의 승리는 계속되리라 믿는다. 할렐루야!

노인기(집사, 직원·팀)

간증과 나눔

내가 비움은 것은

“주님! 오늘은 청지기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직장의 업무가 일찍 끝나서 꼭 교회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언제인가부터 주님께서는 내게 금요찬양집회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금요일이 되면 직장 업무로 금요찬양집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2009년 첫 청지기훈련이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내 마음을 알아 주셨는지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청지기 훈련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다. “빨리 가야 하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인원에 있어서 교회까지 가려면 쫓히 한 시간은 걸린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많이 막히는 것 같다. 얼마 가지 않았는데 시계는 벌써 저녁 7시가 넘었고 술술 마음이 조금씩 풀린다. “이러다 오늘 청지기훈련에서 한 말씀도 못 듣는 거 아닐까?” 애라는 마음이 어느 새, 간절해서 불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교회 가는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는 내 자신을 보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놓겠다고 고백하던 내 자신이 너무도 창피했다. ‘이! 나는 어찌 할 수 없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어...’

늦게 교회에 도착해서 이미 시작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말씀을 간절히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다 하고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다가 불현듯 내 머리를 치며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비움은 것은... 내가 비움은 것은...” (요 17:15~17).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기도의 참된 본을 보여 주셨는지 오늘 나는 세상적인 기도를 자랑스럽게 하는 거만한 자였으니... 지금껏 내가 기도하였던 것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믿음의 고백들보다 나와 내가 족들의 필요를 따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더 많이 기도했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했던 부끄러운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깨닫게 해 주시고도 오늘 교회로 부르셨음을 알았다.

순승환(집사, 21교구)

나 때문이라고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시며 청지기훈련을 기다리게 하셨다. 혹독한 연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고 만나 주셔서 위로와 격려로 불어 주셨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성경을 붙들게 하고 말씀 속에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심을 알게 하신 “오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내 마음 밖에 삼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예전의 자리에 나갔었다. 말씀을 기다리는 저에게 은혜가 있음을 체험했기에 욕심을 냈다.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그래, 예수님도 기도하셨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나를 깨우시는 순간이었다. 그 많은 날 주님 앞에 었드렸지만 그 었드림은 나의 세상의 아픔과 모자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가? 내 것으로 가득한 간절함이었다.

위임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기도, 그 자체였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소리로 들려왔기에 “아멘.”이 고백되었고 회개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무엇이란 대 그 독생자를 내려주셨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셨는가. “세상의 아픔으로 욕심으로 주께 었드렸을 때 십자가를 지신 채 나를 만나주시 주님, 그 십자가가 대답임을 친히 보여주시 예수님, 핏물을 구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그날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나 때문이라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수백 수천 번 울며 고백하며 회개했던 그날이 떠올라 힘차게 부르던 찬양을 자꾸 멈췄던 청지기훈련! 그날의 은혜를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천인준(집사, 20교구)

그리스도의 기도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조금 넘었지만 나의 마음은 병들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그런 나의 마음을 알고 대학부 수련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수련회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귀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 일 주일 뒤,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 예비하며 두신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소망함을 더욱더 부어주셨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청지기훈련이 열렸고, 갑갑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된 나는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기도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기도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담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에 너무 소홀하였음을 느꼈다. 게다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나의 높아짐과 세상에서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다.

이윤진(대학부)

외식된 기도를 회개하며

지난 나의 60평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전통과 율법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기도 또한 우상을 만들며 바벨탑을 쌓고 마음에 근심하니 나의 형편과 조건을 따지면 서 얼마나 많은 외식된 기도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내 육

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또 한편으로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한 상처투성이 겹겹이. 너무나 메마르고 소름자리 될 수 없이 강박해져 있던 나를 향해 오늘 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통곡과 간절한 간구 속에 겸손과 위로를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과 그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기도임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며 어떠한 정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 나를 지켜주시며 너희를 그리고 우리를 친히 말씀하신 약속대로 지켜주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교만과 불순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 내 안에 살아계신 아뢰고 할 때 또 슬픈 일을 당하여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등을 기대어 기도하고 주님의 가슴에 안겨 눈물을 평량 쏟아보렵니다.

허종숙(전사, 15교구)

주님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들을 주셨고 그로 인해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 항상 “하나님, 어시지요? 저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으로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은 항상 잊어 주셨다.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잠이 들었습니다. “나의 딸아,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잠깐의 기도이지만 마음이 확연히 달라지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생일 선물로 오면 연례행사에서 자주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조금씩 변하였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으로든 예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니 시켜서먹들든 이제는 교패를 붙이도록 하라게 주신 일! 지름을 앞두고 딸일 때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의 맑은 마음, 아직은 완전히 성가치는 못하지만 출장을 가서도 주일예배에 늦지 않도록 전화를 주는 남편의 마음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제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설 수 있도록 다리의 힘과 팔의 힘을 길러 주셔서 혼자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도록 열에서 늘 지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다시 한 번 믿음의 위치를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초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나.” 제가 어떤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는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중 평안한 신앙의 길을 걸었다면 느끼지 못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하라게 주신 일! 지름을 앞두고 주님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내 기도 하는 그 시간 그대가 가장 즐겁다.”

박수경(집사, 13교구)



심사가의 길

그리스도의 삶

사순절의 절정은 '성금요일'(Good Friday)이다. 성금요일은 골보라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에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다. 매년 성금요일이 특별했지만 이번 성금요일(4월 10일)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금요일 칸타타가 있기 때문이다. 칸타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2008년 5월부 10월부 6개월간 금요찬양집에 매체 총 16회에 걸쳐 위임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작곡가가 특별히 만든 곡을 연합찬양대와 온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을 기리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충분히 연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칸타타의 구간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간충현'을 찾아서 '그리스도인의 삶'(2008년 5월 18일~11월 2일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살펴볼까 바란다. 그때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 속으로 들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하자.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 목차

1.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2. 바른 것과 항함함
3. 실질적인 체험
4. 오류에 대한 학각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 아니라 신 자이다
6. 최 융서함과 생명을 주심
7. 아를 담고 귀한 소치
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9. 내 모습 그대로
10. 완전한 교제
11. 정죄의 직분
12. 종의 영예를 벗어나다
13. 율법 없이 살 수 있을까?
14. 완전히 의화한에 있는 자유
15. 은혜 안에서 자라남
16. 영원한 삶

기도의 십자가

사회 초년생, 신혼가정의 남편, 예비 아내의 모습을 갖추느라 정신없는 저에게 청년2부에서의 첫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근무지인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저에게 토요일 아침의 수련회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 임신중인 아내와 병입까지 다녀온 뒤여서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때에 하던 수련회 준비와 열정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주님께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 자신이나 가정의 안위가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정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점차 나 자신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부터 교묘하게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일과나 성령 부으심은 아니었지만 요즘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예비 아내로서의 각성이 담긴 저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잔잔하고 조용하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삶의 지침이나 방향 제시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 이외의 것은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커다란 격정거리를 주셨지만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이 경험'이 정말 필요했고 참 이로운 경험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해 주셨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게 하신 '사랑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다시 주님의 방법과 계획을 깨닫게 하였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해결해야 하는 저에게는 정말 사막에 단비와 같은 평안함이었습니다. 준비가 없었던 저에게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민준(집사, 청년2부)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52	이윤진	12	소망부	조길운(7)	370	전정철	13	청년2부	정미선(13)	388	김성근	19	청년1부	배연식(16)
353	김지현	23	청년2부	조은선(10)	371	김미희	19	청년1부	박순례(12)	389	이수연	22	청년1부	김정현(24)
354	이미현	4	청년1부	김영희(10)	372	김영환	1	청년3부	김영철(12)	390	김성민	20	대학부	조영환(17)
355	김태훈	2	청년3부	김삼희(24)	373	김지숙	1	청년3부	황영철(12)	391	윤준호	13	청년2부	
356	홍종국	9	청년3부	박미숙(9)	374	박지숙	20	청년1부	황미희(13)	392	김영철	13	청년2부	정미선(13)
357	유민준	9	청년2부	박미숙(9)	375	김필준	23	청년2부	김민희(10)	393	황희숙	13	청년2부	정미선(13)
358	홍혜리	9	소년부	박미숙(9)	376	최정	11	청년2부	김민희(10)	394	박준식	23	청년1부	박재준(23)
359	윤찬수	9	유치부	박미숙(9)	377	조수환	11	청년1부	김진욱(10)	395	김준진	23	청년1부	박재준(23)
360	김규현	12	청년1부		378	백지현	17	고등부	황영철(12)	396	조영환	23	청년1부	김준진(23)
361	이민호	1	소년부	김연숙(1)	379	백진우	17	소년부	김민희(17)	397	박재현	23	청년1부	김준진(23)
362	김성안	1	청년2부	김순자(5)	380	김희식	18	청년2부	한민준(19)	398	안효진	23	청년2부	심재선(23)
363	김민진	13	청년1부	임은혜(1)	381	백리	25	외선부	황영철(20)	399	박준식	23	청년1부	심재선(23)
364	이희연	8	중등1부	윤혜현(8)	382	백리	25	외선부	황영철(20)	400	박준식	23	청년1부	심재선(23)
365	김경민	8	중등1부		383	크리스티안	25	외선부	황영철(20)	401	박재현	23	소년부	심재선(23)
366	최주영	11	청년2부	김정순(11)	384	리강호	25	외선부	황영철(20)	402	한동진	24	청년1부	심재선(24)
367	한종구	16	중등3부	이홍준(16)	385	유지환	10	대학부	정철성(10)	403	박민준	24	청년1부	
368	김지현	7	고등부	김석영(7)	386	유재하	10	대학부	정철성(10)	404	박민준	23	청년2부	김영재(4)
369	박준진	6	고등부	임남민(7)	387	김동현	9	고등부	정철성(22)	405	박재현	17	청년2부	왕성민(14)

* 찬양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치기갈럼

심사가 밀로
기도의 자리로

새벽 일찍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주님께서는, "인숙아, 잘 왔다." 하시며 날 맞아 주시는 것 같다. 정말 주님과 은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기도한 후 성경을 읽는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독대는 정말 행복할 시간이다. 특히 월요일새기도회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어다 앉히는 감격을 받는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새 번이나 십자가의 수난을 예고하시던 예수님, 그러나 열지 눈이 멀고 패역한 백성들과 제자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군중 속에 내가 있다. 말로만 표현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인데, 나의 평생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나인데...

나의 삶은 참으로 가증한 입술뿐이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단단하여 굳어버린 심령을 가지고 자기부인을 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나를 돌아본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강하게 살아 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열리겠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애뵤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한다. 외식과 형식으로 굳어버린 참으로 묵은 땅과 같은 나의 심령을 거뒀어 주시길 기도한다. 또한 내 심령 속에 있는 돌 같이 단단한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삶과 같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충만되길 기도한다. 이전에 가득히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라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께 매달리고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기도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며 주님을 찬양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정말로 나를 부인하길 원한다. 교만과 오만과 자만으로 굳어진 묵은 땅과 같은 나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길 원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무뎠음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한다.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뎡을 사랑하길 원한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죽은 자가 무슨 의견이 있으며 무슨 불령이 있었는가?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일진대 무엇을 망설이며 무엇을 드리지 못할 것인가? 나의 내는 삶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써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하며 나는 십자가 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내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조인숙
(권사, 15교구)

교회 소식

모임

- 1. 찬사 연합 예배회
일시 : 18일(수) 12:40
대상 : 1,2,3,4차의 속회 / 사무권사
- 2. 남-녀 전도회 화상 예배회
일시 : 22일(다음 주일) 15:10
장소 : 제1교육관 407호

발세

- 1. 김민희 성도(10교구) 주2구역, 박배정 권사의 모친 / 2일 밤새 4일 장례
- 2. 유옥은 타교구사(교구 찬사구역, 권순옥 집사의 모친) / 7일 밤새 9일 장례
- 3. 조영태 세(19교구) 병우2구역, 김종선 성도의 모친 - 제영일 성도의 장도 / 7일 밤새 9일 장례
- 4. 나순심 성도(15교구) 병우2구역, 박우현 안수집사의 모친 - 박숙남 집사의 시도 / 11일 밤새, 13일 장례

결혼

- 1. 박성진 교(박해복 사도 - 전우순 성도의 아들, 3교구) 유지원 양유정남 씨 - 김경자 씨의 딸, 23교구) / 21일(토) 15:00, 강남문화센터 1층 다이아몬드룸

교회직원 모임

- 1. 복음 부흥회 편집자(주간)총회 및 교재
아래에서 10교구 찬사 구역, 찬사 구역 주대
- 2. 재출 세서
아래에서, 자13개에서, 당회총회찬사(교구) 주대
- 3. 서무회총회
김하구 역동성 665-1 송현교회 사무국
☎ 652-6900(407)

CMTC 직무훈련

- 일시 : 오늘 18:15~19:50
장소 : 김길리홀
- *3교구까지 직무훈련을 못 받으신 분들은 금일 반드시 참석하십시오.(3차 직무훈련은 5월 17일에 있음)
- 장시화(18~21대 안수집사) 기도회
일시 : 22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장소 : 베다니홀

선교언어 훈련

- 일시 : 매주일 15:00
장소 : 제2교육관 501호(보타네) 504호(우크라이나) 505호(몽골) 507호(사우디) 510호(베트남)

2009년 상반기 수회교집

- 일시 : 3월 15일~6월 28일(16주) 매주일 15:10~16:30
장소 : 제2교육관 1층 베다니홀

2009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교육

- 수요성경공부
교과12주 : 3월 15일 - 5월 27일(12주)
교과2주 : 5월 28일 - 7월 11일(12주)
교과3주 : 7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4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5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6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7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8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9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10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11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12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13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14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15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16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17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18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19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20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21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22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23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24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25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26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27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28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29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30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31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32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33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34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35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36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37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38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39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40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41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42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43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44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45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46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47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48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49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50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51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52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53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54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55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56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57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58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59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60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61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62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63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64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65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66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67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68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69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70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71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72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73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74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75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76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77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78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79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80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81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82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83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84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85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86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87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88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89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90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91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92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93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94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95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96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97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98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99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100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101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102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103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104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105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106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107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108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109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110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111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112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113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114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115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116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117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118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119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120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121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122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123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124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125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126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127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128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129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130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131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132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133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134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135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136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137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138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139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140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141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142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143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144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145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146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147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148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149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150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151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152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153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154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155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156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157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158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159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160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161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162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163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164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165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166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167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168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169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170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171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172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173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174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175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176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177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178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179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180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181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182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183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184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185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186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187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188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189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190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191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192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193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194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195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196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197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198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199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200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201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202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203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204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205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206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207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208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209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210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211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212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213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214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215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216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217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218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219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220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221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222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223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224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225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226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227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228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229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230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231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232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233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234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235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236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237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238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239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240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241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242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243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244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245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246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247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248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249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250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251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252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253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254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255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256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257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258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259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260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261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262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263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264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265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266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267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268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269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270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271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272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273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274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275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276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277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278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279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280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281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282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283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284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285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286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287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288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289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290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291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292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293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294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295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296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297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298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299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300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301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302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303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304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305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306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307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308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309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310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311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312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313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314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315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316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317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318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319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320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321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322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323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324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325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326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327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328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329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330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331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332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333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334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335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336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337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338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339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340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341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342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343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344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345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346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347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348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349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350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351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352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353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354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355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356주 : 3월 12일 - 3월 25일(12주)
교과357주 : 3월 26일 - 4월 8일(12주)
교과358주 : 4월 9일 - 4월 22일(12주)
교과359주 : 4월 23일 - 5월 6일(12주)
교과360주 : 5월 7일 - 5월 20일(12주)
교과361주 : 5월 21일 - 6월 3일(12주)
교과362주 : 6월 4일 - 6월 17일(12주)
교과363주 : 6월 18일 - 6월 31일(12주)
교과364주 : 7월 1일 - 7월 14일(12주)
교과365주 : 7월 15일 - 7월 28일(12주)
교과366주 : 7월 29일 - 8월 11일(12주)
교과367주 : 8월 12일 - 8월 25일(12주)
교과368주 : 8월 26일 - 9월 8일(12주)
교과369주 : 9월 9일 - 9월 22일(12주)
교과370주 : 9월 23일 - 10월 6일(12주)
교과371주 : 10월 7일 - 10월 20일(12주)
교과372주 : 10월 21일 - 11월 3일(12주)
교과373주 : 11월 4일 - 11월 17일(12주)
교과374주 : 11월 18일 - 11월 31일(12주)
교과375주 : 12월 1일 - 12월 14일(12주)
교과376주 : 12월 15일 - 12월 28일(12주)
교과377주 : 1월 1일 - 1월 14일(12주)
교과378주 : 1월 15일 - 1월 28일(12주)
교과379주 : 1월 29일 - 2월 11일(12주)
교과380주 : 2월 12일 - 2월 25일(12주)
교과381주 : 2월 26일 - 3월 11일(12주)
교과382